

소식

대한양계협회

1986년도 계군혈청검사 성공리 끝나

— 앞으로는 도가축위생시험소에서 담당 —

1986년도 계군혈청검사 사업이 성공리에 완료되었다.

83년도 7월부터 계속사업으로 실시하고 있는 본회 계군혈청검사사업은 84년, 85년도 농수산부와 한국사료협회의 보조로 가축위생연구소 계약과의 협조를 받아 실시했으며, 86년도는 소요경비 전액을 실수요자가 부담하여 실시했다.

년중 신청농장을 방문해 혈청을 채취, 닭질병전문가들이 닭의 건강상태를 분석해 질병에 대한 자문으로 농장에서는 수준높은 진단 수의사를 고용한 효과를 얻어 질병으로 인한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

는 효과가 있었다.

그 필요성이 널리 알려짐에 따라 매년 신청농장수가 많아져 종계장, 대군양계장 순으로 선정한 86년도 대상농장은 매 계군당 0.5~1%의 닭으로부터 3ml의 혈액을 채취해 실험실에서 혈청을 분리, 각종 닭질병의 항체유무 또는 역가를 측정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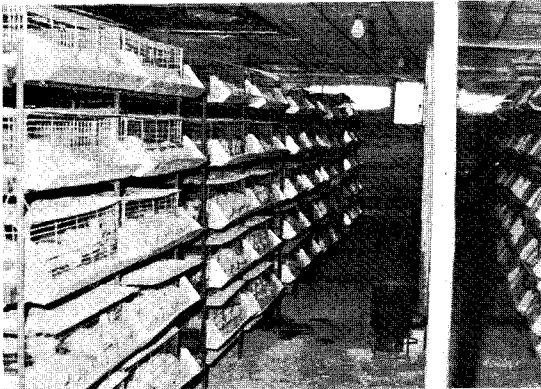
주요 검사질병은 추백리, 마이코플라즈마병, 감보로, 닭뇌척수염, 뉴캐슬병, EDS, 계두 등으로 이를통해 전국적인 닭방역체제확립의 기초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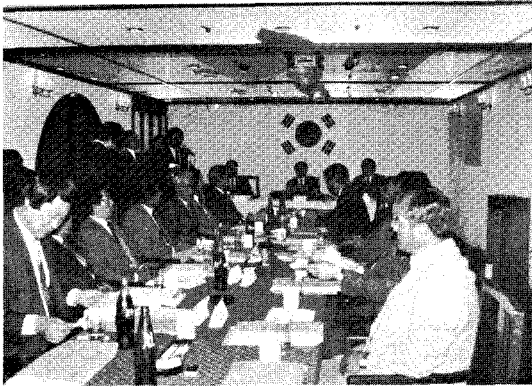
본사업의 중요성에 비추어 87년도부터는 국가방역차원에서 농수산부의 지원으로 각도 가축위생시험소에서 담당할 예정이다.

86년도 4차 이사회 개최

지난 12월 11일 오후 대우빌딩 지하 만다라에서 86년도 제4차 이사회가 개최되었다.

이날 이사회는 협회 주요업무 보고에 이어 부의 안건으로 ▲전결규정중 일부개정 ▲'86검정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 추가경정 ▲'86검정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 예비비 사용추인 ▲일부 분회분리 및 신규설치승인 등을 의결했다.





▲ 86 - 4 차 이사회

이날 이사회에서는 기존 경기도 광주분회를 채란, 육계로 분리 설치 승인되었고, 김포지역의 육계업자를 중심으로한 김포육계분회가 새로이 설립 승인되었다.

회의가 끝난 후 평화의 댐 건설 성금모금과 '86년을 보내면서 본회 임원들의 노고에 감사하며 우의를 돈독히 하기위해 망년회도 가졌다.

이날 회의에 앞서 표어현상공모 최우수상 시상식을 가진 바 있다.

제 4 차 검정위원회 개최

지난 12월 16일 본회 안성검정소 현장에서 86년 제 4 차 검정위원회가 개최되었다.

이날 회의에서는 현재 검정중인 산란계의 중간성적 검토 및 검정요령중 일부 내용의 미비점을 보완키로 했다. 회의가 끝난후 출품농장 대표들과의 간담회도 있었다.

소비홍보표어 당선자 시상식

— 1986. 12. 11. 오후 3시 —

본회가 현상공모한 양계산물 소비홍보표어모집에 대한 시상식이 있었다. 12. 11(목) 오후 3시 본회 정태원 회장이 당선자 대표로 최우수상 수상자(유점자)에게 수여하였다.

이날 시상식은 본회 '86 제 4 차 이사회 개최에 앞서 본회 이사 및 감사들이 모인 자리에서 거행되었으며 우수상 및 장려상 당선자에게는 시상금을 일



괄 송금하였다.

— 당선자 명단 —

유점자	*최우수상(1점)* 알먹고 키자랑 닭먹고 힘자랑
서국진 백두현 안유경 김홍석 고미선 김종운	*우 수 상(6점)* 닭먼저 계란먼저 순서없이 영양만점 우리가족 건강식은 영양만점 닭고기로 달걀은 완전식품 닭고기는 건강식품 계란속의 높은영양 건강주고 웃음준다 알뜰주부 현명한순 먼저찾는 닭과계란 닭고기는 건강식품 계란은 완전식품
안동연 최소담 최종운 신상명 성대용 임충묵 황연향 이무원 김우성 민병인 박재수 박자운 박철승 김영호	*장 려 상(14점)* 달걀하나 건강하나 동그랗게 웃는하루 닭고기와 계란먹어 우리튼튼 나라튼튼 자연식품 계란이고 영양식품 계란이다 닭먹고 알먹으면 영양충족 건강보장 닭요리 계란요리 우리가족 건강식단 우리모두 계란가족 영양만점 절약만점 매일먹는 계란속에 완전영양 평생건강 달걀먹고 나도건강 닭고기먹고 너도건강 계란은 작아도 영양은 우등생 영양만점 건강만점 닭고기와 계란으로 계란속엔 영양가득 건강속엔 행복가득 매일아침 계란한알 튼튼한몸 예쁜얼굴 가족건강 계란으로 국민건강 닭고기로 값싸서 좋은계란 영양많아 더욱좋다

'87 가계부 제작 및 배부 — 2,500권 제작 전국에 배부 —

본회는 양계산물 소비촉진 홍보사업의 제고를 위하여 저축추진중앙회 협조를 받아 '87가계부를 제작해 소비홍보표어 현상공모 응모자 전원과 표어심사위원, 홍보비 협찬자, 축산관련업계, 시군 축정과, 본회회원들에게 배부했다.

2,500권을 제작한 이번 '87가계부는 표지에 본회명을 삽입하고 표2, 표3에 각각 계란 및 닭고기 광고(여성잡지에 게재된 원고)를 인쇄했으며 크기는 4×6배판으로 140페이지이다.

본회는 이밖에도 회원용 '87다이어리(국배판, 36페이지) 2,000부, 업무용수첩(국판 286페이지), 1,500부를 각각 발간해 전국회원 및 관련업체에 배부했다.

본회는 모든 회원에게 우편송달한 바 회원중 가계부, '87다이어리, 업무용수첩을 수령치 못한 경우 본회로 오면 재수령(한정량)이 가능하다.

86년도 전남지부 정기총회 개최

본회 전남지부(지부장 안명수)는 86년도 정기총회를 지난 12월 23일 카톨릭회관 7층(금남로3가)에서 개최했다.

이날 총회에서는 86년도 사업실적보고와 87년도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을 심의하였다.

소비홍보 광고게재 월간지 증정 — 12월호 여원 및 부록가계부 —

본회 금년도 중점사업인 양계산물 소비홍보사업의 일환으로 여성중앙·여성동아(월간지)에 이어 12월호 여원에 닭고기, 부록 '87가계부에 계란 광고를 게재하여 관련업체 및 홍보협찬자, 본회 임원에게 각각 배부하였다.

12월 육계분과위원회 개최 — 1월 회의는 23일 개최예정 —

지난 12월 18일 본회 회의실에서 12월 마지막 육계 분과위원회 및 망년회를 가졌다.



▲12월 육계분과위원회

이날 회의에서 전국의 육계시세는 700원에서 800원대를 형성하고, 병아리가격은 비수요기에 접어들면서 수요감소로 인하여 덤핑 병아리의 출현으로 가격형성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로써 100~150원 정도로 당분간은 계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입추도 상당히 위축되어 주문에 의하지 않고 덤핑 병아리를 넣으려고 하고 있다.

육계가격도 불투명한 상태이다.

육계분과위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별 대군업자가 중심이 되어 지역조직의 활성화를 꾀하여 육계가격도 고시제를 하는 방향을 모색키로 하고 1월중 지역별 대표자가 모여 세부방안을 협의키로 했다.

이날 회의가 끝난후 회원간의 친목을 위해 망년회도 가졌다.

1월 분과회의는 구정관계로 앞당겨 1월 23일(금)에 개최할 예정인 바 착오없이 참석하기 바라며 특히 구정 가격전망 및 수요전망을 파악할 예정이다.

농수산부감사 수검

본회는 지난 12월 12일(금)~13일(토) 양일간



본회 회의실에서 1984~86년도 본회 업무에 대한 농수산부 감사를 수집하였다.

본 감사는 기간동안 주요사업 실시, 수지예산 집행결과에 대한 업무전반에 걸쳐 실시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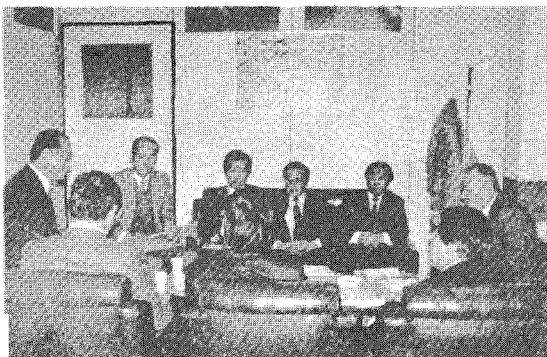
평화의댐 및 불우이웃돕기 성금

본회에서는 연말을 맞아 전 임직원이 모금한 평화의 댐 건설 성금과 불우이웃을 돕기 위한 성금(55만원)을 모금하여 KBS와 중구 청소년 재활원에 전달했다.

가축개량협의회 개최

지난 12월 23일 오후 본회 회의실에서 가축개량 방안 개선을 위한 가축개량협의회를 개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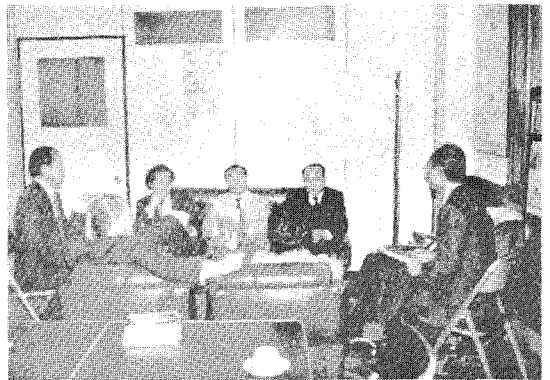
이날 회의는 오세정 건국대학교수, 정선부 축산시험장 가금과장, 김영환 한국양계연구소 소장, 남궁선 가축위생연구소 계역과장, 농수산부 관계관 본



회 이규성 검정소장이 참석하여 양계업 발전을 위한 전반적인 닭개량 방향에 대해 논의하였다.

12월 편집위원회 개최

86년도 12월 편집위원회(위원장 정선부 박사)가 18일 본회 회의실에서 전 편집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12월호의 검토와 87년 1월호 편집계획(안)에 대한 논의로 이루어졌는데, 이날 중점 토의 내용은 편집기법에 대한 개선이었다.



독자들로부터 좀더 호응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알찬 내용도 중요하지만 내용을 편집하는 형식 또한 중요함이 거론되었다.

이날은 본회 황인옥 전무로부터 협회 운영방안(월간 양계지발간)에 대한 의견교환이 있었으며 한 해를 결산하는 광범위한 회의였고, 87년에는 보다 향상된 「월간양계」지를 펴낼 것을 참석자 전원의 공 동의사로 규합하고 편집위원회를 마쳤다.

자조금제도 책자 발행

본회는 대한양돈협회, 한국낙농육우협회, 미국사료곡물협회와 공동으로 자조금제도(check-off system) 책자 2,000부를 발간하였다.

이 책자는 지난 1985년 5월 31일~6월 16일동안 미국사료곡물협회의 초청으로 미국농업의 생산자 자조금제도를 자세하게 살펴볼 기회를 가졌던 바 ▲미국축산업의 최근 생산, 유통, 소비부문 실

태연구조사 ▲생산자조직의 설립·운영경토 ▲미국의 자조금운영 및 국내도입의 타당성 검토를 위한 목적에서 제작되었다.

축산업의 규모가 확대되면서 소비확대를 위해 생산자의 자구책이 절실히 요청됨에 따라 자조금과 같은 제도기금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는 것은 당연한 추세이다.

본 책자는 앞으로 자조금제도 강습회 등 교재로 이용될 예정이며, 관심있는 분들은 본회로 연락하면 책자구입이 가능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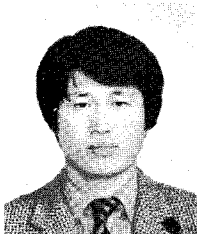
본회 86년도 종무식 거행

본회는 지난 12월 31일 오후 전직원이 참석, 간단한 다과를 마련한 가운데 본회 회의실에서 86년도 종무식을 가졌다.

황인옥전무는 전 직원을 격려하는 한편, 87년도에는 전직원이 더욱 창의적이고 능동적인 자세로 양축가를 위해서 양계산업발전에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남두희 편집부장 농수산부장관 표창

지난 12월30일(화) 농수산부는 86년도 양정시책 유공자에 대한 표창을 실시했는데 본회 남두희 편집부장이 양계산물 소비홍보로 국민식생활 개선과 보건향상 및 가정경제향상에 기여한 공로로 장관표창을 받았다.



◀남두희의 편집부장

86년에 시작한 양계산물 소비홍보사업을 직접 주관하여 닭고기와 계란의 우수성을 널리 홍보하여 양계산물의 소비증대를 통한 국민식생활개선과 보건향상, 가정경제의 향상을 도모하는데 불철주야

노력한 바 양계산업의 안정화와 국민식생활개선에 기여한 공로가 지대하여 장관상을 표창하기에 이르렀다.

표창장은 농수산부장관을 대신해 이동우 제 1차 관보가 전수했다.

양계업 소득표준을인하 건의

- 본회 적극 추진중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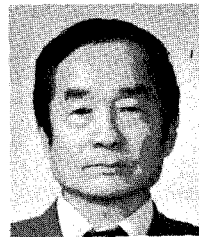
본회는 양계업에 대한 소득표준율이 현실보다 높게 책정되어 있어 양계농가의 어려움이 많아 국제청에 86소득표준율을 인하해 줄 것을 건의했다.

현행 기본율이 9%로 되어있는 소득표준율을 본회가 조사한 채란계 3.8%, 육계농가-5.5%로 양계업을 채란계, 육계로 구분하고 현실에 맞도록 시정해 줄것을 국제청에 건의하고 농수산부에 협조요청한 것이다.

본회는 이의 관철을 위해 관계요로를 방문해 적극 추진중에 있다.

서울사료 홍보비 1백만원 협찬

서울사료(주)(대표 이규상)는 지난 12월30일 양계산물소비홍보 협찬금 1백만원을 본회에 보내왔다.



◀서울사료 이규상 사장

이로써 86년도 홍보비 거출총액은 1억 1백 46만 8천원이 되었다.(현물 및 협찬자 집행액 2천 4백 여만원 포함)

